

죽음 앞둔 그가 세상에 보냈던 마지막 편지

‘눈물’ 최인호 지음

“...나는 내 남처럼 그윽한 곳에서/ 울며 크게 외치고 싶은 한줌의 황도흙이 된 채/ 내 여기 고토의 숨을 쉬노라/ 나는 조용한 휴식에 문힐지언정/ 결코 잠을 자지 않노라”(1961년 작가 최인호가 서울고 1년 재학시절 쓴 시 ‘휴식’ 중에서)

‘영원한 청년 작가’ 최인호의 유고집 ‘눈물’이 나왔다. 지난 9월 25일 침샘암으로 타계한 작가의 마지막 책이다. 그는 스스로 ‘고통의 축제’라고 명명했던 5년간의 투병 시간을 지나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유고집 ‘눈물’은 그의 불꽃같은 삶을 증명하는 흔적이다.

작가는 깊은 밤 자신의 마지막 책이 될 지도 모르는, 어쩌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는 원고를 준비했다. 그러므로 ‘눈물’은, 작가가 이전 한 인간의 내밀한 고백이다.

최인호는 1970년대 청년문화를 대변하는 작가였다. 세련된 문체와 도시적 감수성, 흡입력 있는 서사로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지금의 50, 60대가 70년대를 남만의 시대로 생각한다면, 단분히 최인호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학 입문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벽구멍으로’가 입선해 문학의 길로 들어선다. 이후 그는 ‘별들의 고향’ ‘고래 사냥’ ‘겨울 나그네’ 등을 펴내며 소설 100만부 시대를 연다.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개척했고 순수와 대중문학 모두에서 인정받는 작가로 우뚝 섰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까지 글을 썼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축제로 승화



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글쓰기가 치유의 한 방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터이다.

병이 깊어갈수록 작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해졌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에게 마지막 열정을 쏟게 했다.

‘눈물’은 작가 최인호의 영적 고백이다. 그는 인간만의 아름다움과 곡진한 슬픔을 목상했다. 그리고 그는 신을 향해 ‘빈손’으로 나아가길 꿈꾸었다.

죽음과 마주한 영혼의 울림은 깊고 나직하다. 별거벗은 영혼은 낯것 그대로의 삶과 죽음을 본다. 이렇듯 ‘눈물’에는 병마의 고통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오롯이 담겨 있다.

유고집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책 더미 속에 묻혀 있는 미공개 원고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작가의 말도, 목차도 없는, 말 그대로 미완성의 원고였다.

그러나 책도 나름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 사람에게도 자신만의 고유한 운명이 있듯이, 미완성의 원고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과 주리고 목마른 사람과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백·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故 최인호〉

진정한 이해와 사랑... 깊은 감동

‘국수’

김습 지음

대산문화상과 현대문학상을 거머쥐며 뛰어난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김습 작가가 삼년 만에 네번째 소설집 ‘국수’를 펴냈다.

책에는 현대문학상 수상작 ‘그 밤의 경숙’을 비롯해 작가의 탁월한 소설세계를 보여주는 9편의 작품이 실렸다.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가 깊이 집중하는 관계는 ‘가족’이다. 가족의 의미를 진중하고도 새롭게 전착하는 진정성과 더불어 현대인이 알고 있는 분열적 심리에 대한 성찰과 묘사가 지



적 각성과 동시에 깊고 풍부한 울림을 선사한다.

이 가운데 ‘국수’와 ‘육천 가는 날’은 전통 서사에 기대어 모녀간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결을 함께한다.

표제작 ‘국수’는 외롭고 고단했을 계모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화해할 기회를 주는 주인공의 심리를 국수를 만드는 일련의 조리 과정에 탁월하게 버무려낸다.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창비·1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가슴 먹먹한 756일간의 기록

‘잃어버린 날들’

장미정 지음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의 주인공 장미정씨가 고백하는 가슴 먹먹한 756일간의 기록을 담은 ‘잃어버린 날들’이 출간됐다.

2004년 10월 30일,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아이 열마였던 저자는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코카인 17kg이 든 트렁크를 소지하고 있다가 공항 경찰로부터 적발됐다.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마약사범이 되어 수감을 차게 된 그의 애끓는 절규에도 화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책은 저자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사건의 진실과 자신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당시의 실제 일기를 바탕으로 한 회고록이다.

어떤 문학적 수사도, 상황을 긴박하게 만들거나 과장하는 허구적 장치도 하나 없이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느낌을 진솔하게 들려 준다.

사건발발 프로그램에 단서를 제공하고, 영화의 모티프가 되면서 세상에 존재를 알린 그의 일기가 완전한 모양새를 갖추어 공개되는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한권의책·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순천 와온마을 16번 가로등 밑을 걷고 싶어진다

‘길귀신의 노래’

곽재구 지음

시인은 올 겨울에도 여행자가 돼 길 위에 있다. 인도 웨스트 뱅골주의 산티니케톤에 머무는 중이다.

산문집 ‘곽재구의 포구 기행’과 ‘예술기행’을 펴냈던 곽재구 시인이 ‘지상을 걷는 쓸쓸한 여행자를 위한’ 산문집 ‘길귀신의 노래’를 펴냈다. 길 위에 나설 때마다 항상 든든한 동무가 되어주었던 길귀신과 함께 써내려간 삶의 기록이다.

시인의 글을 읽다 보면 그처럼 길 위에 서고 싶어진다. 특히 순천만에 자리한 작은 바닷가, 마을 이름이 아름다운 순천 와온마을에는 꼭 한번 들러 그가 명명한 16번 가로등 밑을 걷고 싶어진다. 별량 옥쟁이 할멈의 식당에 들러 맛있는 음식에 욕 한바가지까지 먹는



건 덤이고, 책에는 달천 마을, 여자도, 파람바구 마을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또 산티니케톤 벼룩 시장에서 열무를 팔던 아이, 배낭에 들어 있는 시집을 보고 검객대에서 무사통과시켜주던, 1995년 소련 여행에서 만난 공화요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의 추억이나 불로동 다리에서 만난 평민 부부의 애뜻한 모습, 재직하고 있는 순천대 정문 앞에서 봉어빵과 국화빵을 파는 두 아주머니의 이야기 등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열림원·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통의 것을 사유화 하려는 자본주의

‘공통체’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오늘 우리들 삶의 화두는 ‘안녕’이다. 역사적으로 그 만큼 안녕하지 않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정치 사상이 이탈리아 안토니오 네그리와 미국 듀크 대학 문화부 교수 마이클 하트가 펴낸 ‘공통체’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공통체’는 현재 처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부딪쳐야 할 삶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신자유주의권 시민주의적 복지국가건 문제의 근원에는 ‘소유’가 있다고 본다. 그 가운데서도 공통의 것에 대한 사유화는 필경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통적인 것은 물, 토지, 철도, 의료, 미디어, 금융 등과 같이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는 부(富)를 말한다. 여기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같은 ‘공통적 관계’를 포괄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공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 했던 시도에 다를 아니라고 단언한다. 2008년 금융위기와 이후 계속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종의 민주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공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는 자본주의에 맞서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월의책·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활용하기, 썩히기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비 존슨 지음

1년간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1리터뿐이라고 한다면 믿어질까? 미국 캘리포니아 밀 밸리에서 살고 있는 4인 가족이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삶을 통해 환경보호의 기수로 떠오른 환경운동가 비 존슨이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를 발간했다. 프랑스 아마존 1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책은 심플하고 정리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각 도시의 자치구들은 너나없이 “쓰레기를 줄입니다”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저자는 쓰레기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포장제품 소비를 줄였고 대부분의 용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이용하고 장을 볼 때는 반드시 장바구니를 들고 갔다.

저자가 강조하는 이 같은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 규칙으로 요약된다. 일명 ‘R’ 규칙으로 명명된 방법을 따르면 쓰레기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기’(Refuse)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Reduce) ‘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Reuse)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Recycle) ‘나머지는 썩히기’(Rot) 등이다.

〈창립Life·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백석 시를 읽는다는 것=곱집에 읽을수록 깊고 다양한 맛으로 새로이 다가오는 백석의 시. 2012년은 백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07년 ‘정본 백석 시집’을 엮어 책으로 펴내며 백석 시 연구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고흥진 교수가 6년 만에 백석에 대한 자신의 글들을 모은 ‘백석 시를 읽는다는 것’을 펴냈다. 책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고흥진 교수가 학술지와 문예지에 발표한 글 10편이 실려 있다.

▲하루하루 기분 좋아저라=‘포엠튼’, ‘멈추지 말아요, 완두콩씨’, ‘두근두근 기분 좋아저라’의 작가 페리테일이 ‘기분 좋음’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페리테일은 말한다. “내가 가진 것들이 요만큼이면 그만큼 만족해. 거기에 조금만 더 얹어도 충분히 기분 좋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에 작은 글 한 줄, 작은 사진 한 장, 작은 그림 하나가 얹어져 당신이 ‘아주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넥서스BOOKS·1만3900원〉

▲오강남의 그리스도교 이야기=예수는 없다’의 저자 오강남 교수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첫걸음으로 ‘오강남의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펴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입장 차이와 상관없이,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에 품은 신앙이 무엇이든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다.

〈현암사·1만5000원〉



▲도시와 나=성석제, 정미경, 함정임 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와 백영옥, 서진 등 대중성을 겸비한 소설가 그리고 윤고는, 한은형 등 곧 문단을 이끌어갈 젊은 작가들이 해외 도시를 배경으로 쓴 단편소설 7편을 모은 소설집이 나왔다. 평이한 에세이가 아닌 문학성 짙은 단편소설로서 해외 도시의 이국적인 위양스와 낯선 여행의 묘미, 아울러 읽는 재미를 풍성하게 담아냈다. 〈비람·1만2000원〉

▲천천히 걸으며 제자백가를 만나다=제자백가의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심원한 생명력에 주목해 그들의 사상을 단 한 권으로 정리하고 재미있는 일화로 풀어냈다. 맹자의 목직한 시대의식과 장자의 천진무궁한 삶, 여불위의 난세를 꿰뚫는 지략과 목자의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한비자의 무서운 지성과 무위(無爲)를 추구한 열자의 순수한 인생관까지, 시대를 초월해 읽히는 고전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쉽게 풀어내 흥미진진한 이야기 형식으로 꾸었다. 〈김영사·1만8000원〉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서울의 달’ ‘육이 이모’의 김문경, ‘야신’ 김성근, ‘동양철학 에세이’의 김교빈, ‘썰전’의 이철희, 시 쓰는 건축가 함성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20명의 저자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세월론. 시답잖은 세월 타령을 꾸짖으며, 나이 들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21편의 글이 실렸다.

〈페이퍼북·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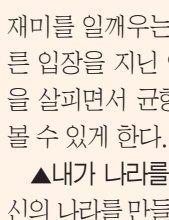
▲꿈꾸는 소금통=‘나’를 찾아 나선 빨간 소금통 크락스의 모험이야기.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이다. 아이들은 작고 약하지만 누구보다 커다란 용기를 가진 크락스의 이야기를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

〈푸른숲 주니어·1만원〉

▲고요한 나라를 찾아서=준이와 윤이의 고토인 나라 여행은 신기하고 놀라운 상상의 세계다.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로 접은 종이비행기는 벽에 걸린 그림 속으로 날아가고, 그림 속에서 고요한 나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된다. 돌아가신 아빠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다.

〈북극곰·1만5000원〉

▲해파랑길을 걸어요 경주, 부산=호랑이 등을 타고 부산부터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쪽올라가는 길 ‘해파랑길’ 10구간 중 걸으며 인문학 여행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곳을 뽑아 소개



한 책이다. ‘경주’편과 ‘부산’편이 나왔다. 해파랑길 곳곳에서는 문화재와 유적지는 물론, 각 지역 고유의 생태와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내인생의책·각권 1만2000원〉

▲한국사 맞수 열전=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사상·문화·예술·종교 등 우리 역사 대표 인물 74명 37쌍이 펼쳐지는 사랑, 우정, 배신, 화해의 드라마를 통해 한국사의 흐름과 재미를 일깨우는 청소년 역사 교양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인물들을 독자가 양측의 입장을 살피면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북멘토·1만5000원〉

▲내가 나라를 만든다면?=아이가 직접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보면서 교과서 속 사회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라를 세울 땅을 찾고 나라 이름을 짓고, 국기와 국가, 정부, 법, 경제, 돈 등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은 어렵고 딱딱한 사회가 아닌 재미있는 게임처럼 사회를 접할 수 있게 한다.

〈토토북·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